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 몽골서 글로벌 나눔 실천

3개대 학생들, 교육봉사·문화교류 통해 세계시민 역량 강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이기용 목사, 이하 한성연) 산하 대학들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5박 6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비앙주르 교회에서 '2026학년도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해외봉사는 한성연 신하 대학들로
성결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신대대학교, 나
사렛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연합 봉사활동
을 펼쳤다. 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나눔과
선김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세계시민으
로서의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단은 3개 대학 학생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몽골 현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봉사단은 유치부와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개 조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성결대학교는 체육교육, 나렛대학교는 미술교육, 서울신학대학교는 음악교육을 맡아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참가 학생들은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합대학봉사단 학생들은 태권도
범과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
선보이며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현지
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 공연마다
이진 뜨거운 호응은 언어와 문화를 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
기였다.

이번 해의공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학생들이 협력과 배려, 책임감을 배우고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 특히 대학 간 연합 봉사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목협 제29차 정기총회... 신임 대표회장엔 이상문 목사

“시중복음의 순수성 회복하고, 목회현장 성결의 가치 확산” 다짐

성결회회복을위한목회자협의회(이하 성목협)가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 두란노교회이상분 목사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인 대표회장에 이상분목사를 추대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시대의 아픔을 발원 성결의 정체성을 다시금 아로새기며, 교단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제12대 대표회장 강명국 목사는 '조심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사중복음의 핵심인 성결의 가치를 다시금 고취시켰다. 강 목사는 "시대가 변하고 목회 환경이 척박해 질수록 순수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의 순수성과 첫 부르심의 소명뿐"이라며, "성목회가 성결성 회복을 선도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영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고문 김원교 목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29회차 리더십이 성경교단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갱신을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예배는 직전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 및 감사·회계 보고를 마친 후, 제29차 인원선출이 있었다. 대표회장 이상돈 목사, 상임회장 서영원 목사, 공동회장 강재일 김용래 심상훈 이상복 목사, 사무총장 전승환 목사, 서기 박재영 목사, 부서기 송진석 목사, 회계 회상범 목사, 부회계 손기선 목사, 그리고 본회를 돕기 위해 다수의 정회원위원들이 선출됐다.

신임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동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지켜온 보배로운 전통을 이어받아, 성결의 가치를 목회 현장에 구체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간의 따뜻한 소통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하는 동역의 장을 만드는 데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임 총재에 최상현 목사를, 부총재에 직전 대표회장 강명국 목사를 각각 추대하여 신규 조화를 이룬 든든한 실부 임원진을 구축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한 성목협회는 이번 29차 총회를 기점으로 목회자 영성 및 결집성 회복 운동등, 교단 내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깊이 있는 사역들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단 광고 참조)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C채널 뉴스포커스 출연

다음세대 사역 위한 '다음세대리더십연합' 포부 밝혀

두란노교회 이장분 목사가 기독교전문 채널 C채널 뉴스프로그램 이슈포커스에 출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감소와 이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다음세대리더십연합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대표회장 이상문 국사는 “다음세대 리더십연합은 단순한 사역 단체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라며, “우리 아이들이 영성과 실력 인격과 사명을 분기하지 않고 통합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단발성 집회나 캠페인 등이벤트 형식이 아닌 영성·교육·관계·문화가



함께 작동하는 생태계를 통한 청소년 복
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다음세대
를 신앙과 삶, 기술과 문화, 영성과 리더

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인 인격체가 성장하는 리더로 세우고자 한다.”고도 했다.

정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장로)가 캐나다 주요 대학 및 경제기관과 잇따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북미 지역 글로벌 교육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성결대는 UFV(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와 IWU(Iminity Western University), 그리고 랭리 상공회의소(Greater Langley Chamber of Commerce)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연구 △교원 및 직원 단기 방문 △교원하생 및 학점교류 △온라인 국제공동수업(COIL) △국제여름학교 및 단기연수 △학생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주목받은 것은
결대가 개발·운영 중인 GMBC(Global
Meta-Bridge Campus) 플랫폼이다.

이중서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가 이 직접 시연에 나선 GMBC는 메타버스 기반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온라인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교육과 학점교류, 공동교육과정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국제 교육 모델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GMB에 접속한 뒤 AI 마켓 코트,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 전시관, 파트너스 대학 캠퍼스, 가상공항 등을 체험했다. 온라인 국제공동수업(COIL)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컬처마케팅

로그랩 운영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발표 이후 UFV와 IWU 관계자들
GMBC 기반 글로벌 교육 모델에 높은
심을 보였으며, 양 대학의 GMBC 캠퍼
를 구축해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
없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메타
스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뜻을
었다. 온라인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단
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희석 총장은 “이번 캐나다 방문은 학 간 교류를 넘어 교육과 연구, 산업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계 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결대학교, 캐나다 주요 대학 · 경제기관과 MOU 체결

UFV · TWU · 랭리 상공회의소와 학생교류 · 산학협력 본격 추진

